



## 미 증시, 금융주 호실적에도 인플레이션 부담 등으로 약세

### 미국 증시 리뷰

13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금융주들의 호실적에도, 6 월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에 따른 인플레이션 논란 재점화, 30 년물 입찰 부진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파월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경계심리 등이 장 중반 이후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약세로 마감(다우 -0.3%, S&P500 -0.4%, 나스닥 -0.4%). 업종별로는 기술(+0.4%)을 제외한 부동산(-1.3%), 경기소비재(-1.2%), 금융(-1.1%)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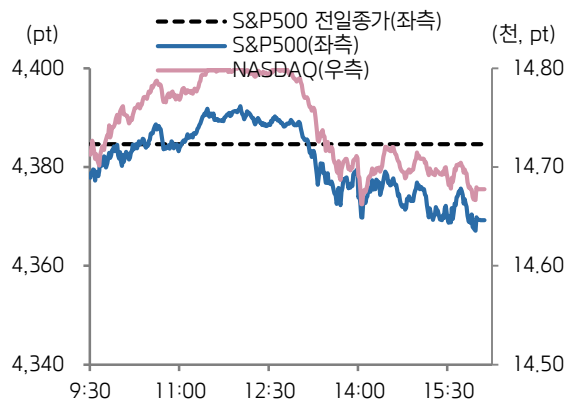
미국의 6 월 소비자물가는 5.4%(YoY)로 전월(5.0%) 및 예상치(4.9%)를 상회하며 2008 년 8 월(5.4%)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4.5%로 전월(3.8%) 및 예상치(4.0%)를 상회. 전월대비(MoM)로도 6 월 소비자물가는 0.9%로 전월(0.6%) 및 예상치(0.5%)를 상회했으며, 근원 소비자물가도 0.9%로 전월(0.7%) 및 예상치(0.4%)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미국 증시 평가

6 월 소비자물가가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배경은 일시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 공급 부족에 따른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에도) 원활한 경제 재개 진행에 따른 수요 급증 영향이 컸기 때문. 중고차 가격 급등세(+45%YoY, +11%MoM)가 6 월 물가 상승에 약 30%를 기여했고, 렌터카비용(+88%YoY), 항공료(+18YoY)등이 물가도 동반 급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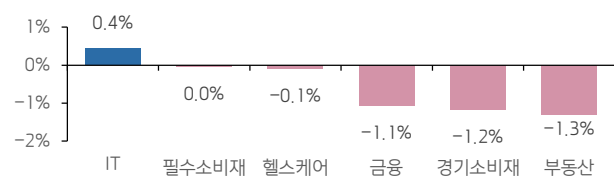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5%대 이상 고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 또한 대부분 물가 급등 배경이 수요급증에서 기인한 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축, 그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다만, 지난 4,5 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판단에 변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연준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 향후 예정된 파월 의장의 상하원 연설, 여타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서 이들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S&P500 일중 차트(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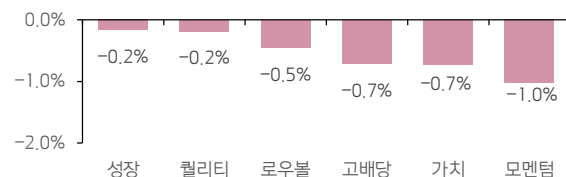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1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13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0.5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인플레이션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여부 2. 호실적을 발표한 미국 금융주들의 주가 부진으로 인한 국내 금융주 동반 약세 가능성 3. 단기적인 지수 레벨 부담에 따른 개인들의 차익실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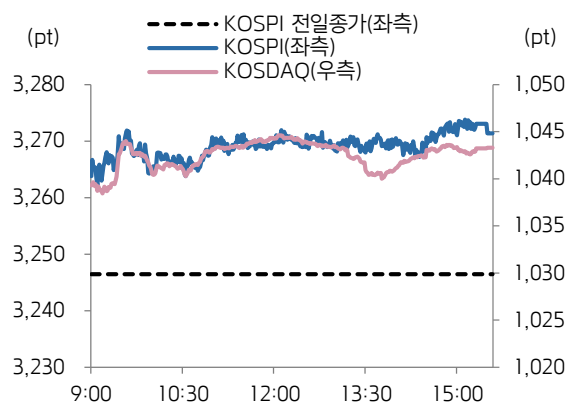
## 한국 증시 리뷰

13 일(화) 코스피는 6 월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둔 관망심리가 상존했음에도, 실적 시즌 기대감, 중국의 6 월 수출입 호조,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 조성에 힘입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 마감. 또한 전거래일 미국 테슬라 급등, 국내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 기대감 등으로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에 추가 모멘텀을 제공(코스피 +0.7%, 코스닥 +0.8%). 업종별로는 의약품(-0.5%), 종이목재(-0.1%)를 제외한 서비스(+1.6%), 섬유 의복(+1.6%), 유통(+1.6%), 의료정밀(+1.4%)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40 억원, 3,070 억원 순매수, 개인이 5,630 억원 순매도를 기록.

##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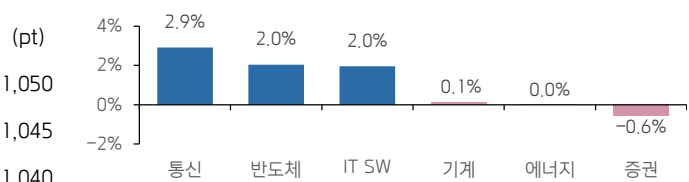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6 월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 2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경계심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방압력을 받으며 장중 부진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미국 증시에서 골드만삭스(-1.2%), JP 모건(-1.4%) 등 금융주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2 분기 호실적 전망은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컸으며, 3 분기 이후의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데서 기인. 국내 실적 시즌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 분기 실적 결과 보다는 이후 컨퍼런스콜에서의 실적 전망 추가 개선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 또한 당사는 일시적인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논란은 재차 첨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지수 상승을 제한시킬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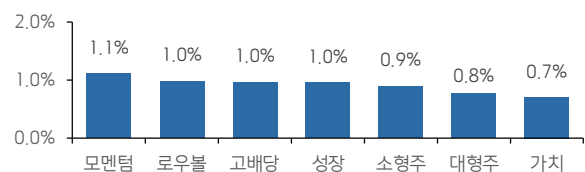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1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13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